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에 지속적 노력”

### 기아 오토랜드광주, ‘2026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 13년간 다문화가정·소외계층에 총 18억여원 전달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균등한 성장기회 제공과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6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2014년부터 13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기존 드림토크콘서트, 수상한 과학교실, 퓨처챌린지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초록빛 새싹학교, 하모니 캠페스트라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드림 토크 콘서트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자신의 경험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드림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꿈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광주 지역 5개 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퓨처챌린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문화예술인에게는 맞춤형 후원금을 지원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상한 과학교실은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해 지역 아동센터 2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과학프로그램이다. 올해 수상한 과학교실에서는 모빌리티, 미래 과학기술, 환경 등을 주제로 아동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기를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추가되는 초록빛 새싹학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록빛 새싹학교에서는 기초생활과 한국어 교육을 수준별로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 능력 진단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균등한 성장기회 제공과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6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기아 오토랜드광주

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하모니 캠페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모니 캠페스트라에서는 가족이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한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문제웅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영 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에게 후원금 1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챌린지 사업은 지

역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2014년부터 ‘기아챌린지 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까지 총 18억1000만원을 후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광주환경공단, 환경기초시설 안전 살피

### 민관합동 점검...첨단장비 활용 정밀 안전진단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집중안전점검을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수처리장과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1하수처리장과 광역위생매립장 등 총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준섭 기술본부장의 총괄 하에 공단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이 수행했으며, 기술사·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0명이 참여해 구조 안전성, 화재·폭발 위험, 전기·기계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드론을 활용한 고소·접근 곤란 구역 점

검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이상 발열 탐지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점검의 정밀도를 높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단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 실천 모델 집수리학교 ‘눈길’

### 3기 27명 수료식 개최 생활밀착형 교육으로 사회 보호계층 지원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시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며 지역사회 주거복지 실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임원진과 교육 이수생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민 집수리학교(제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집수리학교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자가 집수리 역



광주도시공사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임원진과 교육 이수생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민 집수리학교(제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교육 과정의 80% 이상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들에게 수료

증을 전달했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타의 모범이 된 수료생 4명을 별도로 시상하고,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집수

리 공구 세트’를 기본 기념품으로 증정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의 역량이 향후 지역 내 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활동 등 자발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선순환 구조를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도시공사 김승남 사장은 “시민들이 직접 땀 흘려 배운 기술이 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값진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오상호 켄텍 교수, ‘훔볼트 연구상’ 수상

### 실시간 원자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분야 성과 인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에너지공학부 오상호 교수(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훔볼트 연구상(Humboldt Research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은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이 매년 전 세계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연구자 최대 100명 내외를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약 8만 유로의 상금과 함께 독일 연구기관에서 최대 1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훔볼트 재단은 140여 개국 3만여명의 연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연구자 네트워크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오 교수는 향후 막스플랑크 지속가능재료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실시간 원자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In-situ TEM)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축적해 온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나노선과 나노입자 성장 메커니즘 규명, 나노소재 변형 과정 해석, 산화물 계면·표면 전자구조 분석 등 원자 단위 현상 규명을 통해 소재 연구의 정밀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 학술지 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고체-액체 계면에서 액체 원자

가 질서를 형성하는 현상과 기체-액체-고체 삼중점에서의 나노선 성장 과정을 세계 최초로 관찰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노 금속 재료의 전위 생성과 이동, 소멸과정을 실시간으로 규명한 연구 역시 소재 물성 이해를 크게 확장시켰다는 평가다.

오상호 교수는 “이번 수상은 공동연구자와 연구실 구성원들의 성과”라며 “켄텍 공공장비센터의 전자현미경 분석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해 에너지 소재와 소자의 성능을 좌우하는 원자 구조와 결합, 전자구조를 정밀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게시판

- 결론** ▲곽경문·박은경씨 장남 대영(중흥건설 총보팀 과장)군, 김태남·유동심씨 차녀 성은(광산구 보건소)양-5월 2일(토) 오후 12시 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본관 1층 르쵸엘홀(광산구 임방울로 549).
-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물리치료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3월 13일)

- 48년생 부부 간에 미묘한 갈등이 해소된다
- 60년생 급기야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다
- 72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84년생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날
- 96년생 새로운 일이나 무리한 것 바라지 말라
- 51년생 헛소문으로 끌려 아픈 일이 생긴다
- 63년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재앙을 피한다
- 75년생 생활 변경 안에 있어야 길하다
- 87년생 문제점 있지만 해결 실마리가 보인다
- 99년생 데이트 약속 있으니 아외로 나가자
- 54년생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된다
- 66년생 적용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 78년생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성공한다
- 90년생 부모님 병문안 후 상심하게 될 것이다
- 57년생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 69년생 거래처 변동으로 아쉬운 날
- 81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 93년생 앞장서 일하니 주변의 인정받는 날
- 49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현 일에 전념하라
- 61년생 아래사람과 일 시작하는 것이 길한 시기
- 73년생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
- 85년생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취소 될 것이다
- 97년생 활발히 움직일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 52년생 그 약속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 64년생 차량·길거리를 조심하라
- 76년생 좋은 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
- 88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 차질이 없겠다
- 5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 67년생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 79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 91년생 재앙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58년생 과음을 증병을 부르게 되니 주의하라
- 70년생 복잡한 관계로 접어 들게 될 것이다
- 82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하다
- 94년생 금전 생기고 주변 도움을 받을 것이다
- 50년생 간사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 62년생 사회활동은 혼자서만 할 수 없다
- 74년생 손조로워심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 86년생 배우자는 귀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 98년생 활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53년생 부당선 거래는 이뤄지지 어렵겠다
- 65년생 늦어도 생각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 77년생 헛소문으로 송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89년생 작은 일에 휘말려 중대한 일을 놓친다
- 56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 68년생 찢리고 베이는 것을 주의하라
- 80년생 남자의 일은 될 수 있으면 나서지 말라
- 92년생 요행을 버리는 마음으로 투기는 금물
- 59년생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 71년생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 83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 95년생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